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Children's Friendship and Self-perception in Relation to
Peer Bullying and Victimization*

이은혜(Unhai Rhee)¹⁾

고윤주(Yun-Joo Koh)²⁾

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peer bullying/victimization, friendship, and self-perception were examined in a sample of 279 fourth,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on peer bullying/victimization was collected by peer report using Korean Peer Nomination Inventory; children reported for themselves on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and the Self-Perception Scale. Children who were involved in peer bullying/victimization reported fewer reciprocal friends and friends similar to themselves; they also showed low friendship quality. Peer victimization was predictable from low perception of social acceptance and friendship satisfaction, while intimacy with friends and high confidence on physical ability predicted peer bullying.

Key Words : 또래괴롭힘, 또래 피해(peer victimization), 또래 가해(peer bullying), 친구관계(friendship), 자아지각(self-perception).

I. 서론

또래들간의 폭력 문제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또래 폭력의 발생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가담하는 연령도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근 추세는 심각한 수위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일간 신문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이 중·고교생보다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으며, 폭력 발생 장소의 47.9%가 학교 교실이었다 한다(조선일보, 2004. 1. 13).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아동의 또래 폭력 및 또래괴롭힘에 관한 연구들이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¹⁾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Unhai Rhee,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120-749, Korea E-mail : uhrhee@yonsei.ac.kr

또래괴롭힘은 현재 ‘또래폭력’, ‘집단따돌림’, ‘왕따’,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은 또래집단 내에서 한 명 또는 다수의 아동이 고의적으로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 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래괴롭힘은 또래관계 내에서 해를 가하거나 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해(bullying)와 피해(victimization)로 구분하며,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추세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가장 빈번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특성과 효과적인 중재 방안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 아동이 갖고 있는 심리 사회적, 정신병리적 문제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심희옥, 2003; 양원경·도현심, 1999; 이점숙·유안진, 1999; 이춘재·곽금주, 2000a; Egan & Perry, 1998; Schwartz, Farver, Chang, & Lee-Shin, 2002). 둘째,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또래괴롭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아동의 친구관계가 또래괴롭힘의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들(Boulton, Trueman, Chau, Whitehead, & Amatya, 1999; Hodges, Boivin, Vitaro, & Bukowski, 1999)과 아동의 친구관계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확대한 연구도 발견할 수 있다(박보경, 도현심, 2002). 셋째, 또래괴롭힘 중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곽금주, 2000; 도현심·권정임·박보경·홍성훈·홍주영·황영은, 2003)과 그 밖에 또래괴롭힘의 측정 방법에 대한 이슈를 다룬 연구(정태연·김인경·김은정, 2001)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하게 진행된 연구들의 궁극

적인 목적은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를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더 나아가 또래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있을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부류의 연구들, 즉 아동의 또래 및 친구관계와 또래괴롭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은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또래 관계를 매개로 한 예방적인 중재 방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또래 및 친구관계의 특성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친구관계의 특성들이 아동의 가해 및 피해 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며, 자아지각은 이들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친구관계의 어떠한 특성이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자아지각은 가해 및 피해 정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셋째, 자아지각과 친구관계의 어떠한 하위 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를 예언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몇 개의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또래괴롭힘에 관련된 친구관계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설이 설정되었다. 첫 번째 측면은 친구관계의 유무, 두 번째 측면은 친구의 유형, 세 번째는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이다(Hartup, 1996). 친구의 유무와 관련하여,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들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일관되게 제시되었다(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이러한 특성은 초기에 적절한 사회화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 부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아동은 또래와 친구 관계를 맺지 못하며, 또래집

단에서 무시되거나 거부된 아동들은 고립되어 피해자가 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은 또래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한다(Hodges 등, 1999). 따라서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가설 1).

한편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 중에서 일부는 수동적으로 고립되기보다 그들처럼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은 아동이 자신과 유사한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로 사귀는 일종의 유유상종 현상(homophily)을 고려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Rubin, Lynch, Coplan, Rose-Krasnor & Booth, 1994). 또한 Hodges, Malone, 그리고 Perry(1997)도 아동과 자신이 선택한 상호적 친구간에 또래 피해, 신체적 강인함,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유의한 관계를 제시함으로써 아동이 친구와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아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어떠한 특성, 즉 또래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또래폭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아동인가 하는 점은 아동이 또래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아동이 자신과 유사한 친구를 선호한다는 Rubin과 동료들(1994)의 연구를 참고한다면,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들이 자신과 유사한 특성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에게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도 친밀한 친구가 있다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감소하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피해 아동보다는 가해 아동에게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해 아동은 자신의 친한 친구로 또다른 가해 아동을 사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2).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들은 친구관계의 질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한 아동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친구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은혜·고윤주, 1999; Parker & Asher, 1993)에 따르면, 친구 관계의 질은 사회정서적 지원과 같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갈등' 및 '경쟁'과 같은 관계의 부정적인 면도 포함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친구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얻게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나타내는 '동료관계의 자극', 목적을 성취하도록 도구적 지원을 해주는 '도움',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구가 필요한 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친밀감', 안정되고 변함없는 관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신뢰',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도록 도와주는 '인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정서적 안정' 등이 있다(Mendelson & Aboud, 1999). 또한 친구와 친구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도 친구관계의 질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이상의 다양한 질적인 측면과 또래괴롭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또래 괴롭힘에 가담하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해볼 수 있다. 피해 아동의 개인적 특성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은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자아지각이 낮았으며, 내면화된 그리고 외면화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박보경·도현심, 2002; 심희옥, 2002; 안재진·이경남, 2002). 또한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들은 친구로부터 사회적인 지

원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춘재·곽금주, 2000b). 친밀한 이원적 관계의 기초가 상호성에 있음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다양한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을 피해 아동들의 친구관계는 그렇지 않은 아동들의 경우보다 특히 사회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가설 3). 그러나 가해 아동들의 경우는 다소 다른 양상일 것으로 예측된다.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의 친구관계가 예상외로 안정적이거나(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épy, 1988), 사회정서적 지원 정도도 낮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윤주·김영신, 2003). 이춘재와 곽금주(2000b)의 연구에서도 가해 아동들이 지각하는 친구의 지원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낮지 않았다. 따라서 가해 아동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질은 피해 아동과 비교할 때 그렇게 낮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며, 오히려 일반 아동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가설 4).

다음으로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이 낮은 자아지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연구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회적 수용 그리고 인지적 능력에서(김영신·고윤주·노주선, 2001; 최미경·도현심, 2000; Andreou, 2000; Egan & Perry, 1998) 자아지각이 낮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수용에 관한 결과는 일관성있게 보고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 보고를 통한 연구(양원경·도현심, 1999)에서나 교사 보고(Schwartz 등, 2002)를 활용한 연구에서 모두 피해 아동들의 사회적 수용도가 낮다고 한다. 그러나 가해 아동들의 자아지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가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일반 아동

들과 자아지각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신체적 영역의 자아지각(김영신·고윤주·노주선, 2001; 이춘재·곽금주, 2000b)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낮을 것이고, 가해 아동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가설 5).

끝으로 친구관계, 자아지각, 또래괴롭힘, 이 세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친한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아지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오원정·이은해, 2000; Berndt, 1996; Mendelson & Aboud, 1999)와 함께, 자아지각의 일부 영역들이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친구의 지원이 또래괴롭힘의 피해나 가해와 관련이 있다면,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자아지각의 역할에 관해 두 가지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과 자아지각이 독립적으로 또래괴롭힘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직접적 효과'와 친구의 지원이 자아지각에 의존되어 간접적으로 또래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와 관련되는 '간접적 효과'이다.

친구관계의 한 측면인 친구의 수가 또래괴롭힘의 피해로 인한 자아지각의 저하를 중재한다는 최미경과 도현심(2000)의 연구 결과는 위에 제시한 대안 중에서 '간접적 효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에 의해 또래괴롭힘과 자아지각의 관계를 측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여자 청소년에게만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토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또래 보고를 기초로 가해 및 피해를 측정하는 본 연구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가설은 설정하기 어려우며, 아직은 탐색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정된 가설을 정리해보면 첫째,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둘째, 가해 아동은 자신의 친한 친구로 가해 아동을 사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셋째, 피해 아동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는 그렇지 않은 아동의 경우보다 사회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이다. 넷째, 가해 아동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 아동과 유사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 아동은 다른 집단 아동에 비해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이 낮을 것이며, 가해 아동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을 것이다.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가해 점수 상위 30%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② 가해 집단은 가해 점수 상위 30%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피해 점수 상위 30%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 ③ 피해/가해 집단은 두 점수 모두 상위 30%이상인 아동, ④ 일반 집단은 가해 점수와 피해점수 모두 하위 40%에 해당되는 아동이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279명 아동의 가해 및 피해 점수 평균, 표준 편차, 점수 범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집단간의 차이를 일원 변량 분석한 결과와 Duncan 사후 검증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수도권에 위치한 두 개의 초등학교에서 4, 5, 6학년 아동 503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기초로 일반 집단 66명, 피해 집단 62명, 가해 집단 61명, 피해/가해 집단 90명으로 총 279명의 아동을 선정하였다. 네 집단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 집단은 피해 점수 상위 30%에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또래의 보고로, 친구관계와 자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다음의 도구들이 적용되었다.

1) 또래괴롭힘 :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 (K-PNI : 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2001)를 사용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각 아동이 피해 또는 가해를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설문지는 Perry와 동료들(1988)이 제작한 또래지명 설문지(Peer Nomination Inventory)와 국내 연구자료를 기초

<표 1> 네 집단별 피해 및 가해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및 F값

	아동 유형				F
	일반(n=66)	피해(n=62)	가해(n=61)	피해/가해(n=90)	
피해점수	.04(.04) ^a	2.19(2.54) ^b	.36(.26) ^{ab}	5.77(9.62) ^c	17.58***
범위	.00-.29	.85-18.34	.00-.82	.84-61.71	
가해점수	.00(.08) ^a	.31(3.66) ^a	3.42(9.74) ^b	6.42(6.38) ^c	20.95***
범위	.00-.00	.00-.95	.97-18.24	.97-69.25	

***p<.001

a, b, c : 같은 글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집단임.

로 한국 실정에 맞도록 제작되었는데, 소외형, 언어적 폭력형, 신체적 폭력형, 강압형의 네 가지 폭력 행동으로 나누고 이러한 종류의 가해 행위를 하는 아동이나 피해를 당하는 아동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다. 총 31문항의 도구이나 '피해'에 관련된 8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본 연구에서 .89로, '가해'에 관한 4 문항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7로 산출되었다.

2) 친구관계 : 상호적 친구의 유무와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동용 친구관계의 질 척도 (이은혜, 고윤주, 1999)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Mendelson과 Aboud(1999)의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와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자료를 기초로 한국 아동들에 적합하게 개발된 것이다.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 선택하게 하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9가지 하위 영역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친구의 지원에 해당되는 6가지 하위 영역('동료관계의 자극', '도움', '신뢰', '정서적 안정', '인정', '친밀감')을 측정하는 24문항과 경쟁 및 갈등을 측정하는 8문항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주 많이 그렇다"(4점)에서 "아주 조금 그렇다"(1점)의 4점 평정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자료에서 영역별 Cronbach Alpha 계수는 .71~.87로 산출되었다.

3) 자아지각 : 아동의 자아지각은 초등학교 3-6학년용(이은혜·신숙재·송영주, 1992) 자아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arter 척도(1985)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것으로서, 3-4학년용은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의 5개 영역별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영역별 Cronbach Alpha는 .67에서 .79로 산출되었다. 5-6학년용은 이상

의 5개 영역에 전반적 자아지각 영역이 포함되어 6개 영역의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Cronbach Alpha는 .66에서 .82로 산출되었다. 각 문항의 반응 형식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지각 중의 하나를 먼저 선택한 후, 그 문항의 내용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다시 결정하는 4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4점,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점으로 채점된다.

3. 연구절차와 분석 방법

연구자 중 한 명과 사전에 훈련된 아동학 및 심리학을 전공한 대학원생 5명이 자료 수집에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교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실시 전 아동들에게 급우와 자신에 대한 모든 응답은 비밀로 지켜질 것임을 주지시켰다. 또래지명 설문지와 자아지각 척도가 먼저 실시되었고, 다음에 학급 내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선택해 기록한 후 친구관계의 질 척도에 응답하였다. 세 가지 도구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또래피로움의 피해 및 가해 점수는 아동별 각 문항의 백분율 점수의 평균 점수로 계산되었다. 즉 피해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에 대해 각 문항마다 백분율 점수[(해당 문항에 지명된 수/학급원수)×100]를 구한 후, 이 점수들의 평균을 피해 점수로 정하였다. 가해 점수도 가해를 측정하는 4문항을 기초로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 점수는 각 하위 변인에 속한 문항의 평균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카이검증, 변량분석과 회귀분석이 실시되었으며, 단순 상관계수와 부분상관 계수도 산출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치들의 학년차와 성차가 유의한지를 검증하였으며, 변인 중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가설 검증을 위한 이후의 분석에서는 학년차와 성차를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1. 친구관계의 특성과 또래괴롭힘

1) 상호적 친구의 유무

본 연구에 포함된 279명의 아동들이 각자 가장 친한 친구를 한 명씩 보고하였는데, 아동이 보고한 가장 친한 친구는 아동 자신만 친하다고 선택한 '일방적 친구'와 아동과 친구가 서로 친하다고 선택한 '상호적 친구'로 나눌 수 있다. 일방적인 친구를 보고한 아동과 상호적인 친구를 보고한 아동의 피해 및 가해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상호적 친구를 가진 아동의 가해 및 피해 점수는 일방적 친구를 가진 아동보다 낮은 경향이었다. 특히 피해 점수는 친구관계의 상호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로 인정하는 친구를 학급 내에 가지고 있는 아동이 일방적인 친구를 보고한 아동보다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표 2> 상호적 친구 유무에 따른 피해 및 가해 점수 차이(성 통제)

	아동이 보고한 친구		F
	일방적 친구 (n=159)	상호적 친구 (n=120)	
피해점수	3.10(7.34)	1.53(3.61)	4.74*
가해점수	3.45(7.51)	2.11(4.36)	3.00

*p<.05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들보다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한다.

2) 친구의 유형

전체 연구 대상 아동 279명이 보고한 친구가 가해 및 피해 유형의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164명 아동의 친구가 일반집단, 피해 집단, 가해 집단, 피해/가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115명의 아동이 보고한 친구는 이상의 네 집단 중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않았다. 즉, 가해 및 피해 점수가 일반집단에 속할 만큼 낮지 않거나 상위 30%안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 중간에 속하는 아동들이 있었다.

친구가 네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164명만을 대상으로 <표 3>에 유관표를 만들어, 각 셀의 기대치와 실제 빈도를 비교하였다. 진하게 표시된 숫자는 기대 빈도보다 높은 실제 빈도이다. 아동의 유형과 친구의 유형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 검증한 결과 카이 값($\chi^2=80.43(9)$, $p=0.00$)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아동의 가해 및 피해 분류 유형과 친구의 유형간 유관표

친구의 유형	아동의 유형				
	일반	피해	가해	피해/가해	합계
일반	실제빈도 41 (기대빈도) (16.9)	1 (7.4)	1 (8.3)	4 (14.2)	47 (47.0)
피해	실제빈도 3 (기대빈도) (11.5)	9 (5.0)	5 (5.6)	15 (9.7)	32 (32.0)
가해	실제빈도 9 (기대빈도) (15.8)	6 (7.1)	13 (7.9)	16 (13.6)	44 (45.0)
피해/ 가해	실제빈도 6 (기대빈도) (14.8)	10 (6.5)	10 (7.2)	15 (12.4)	41 (41.0)
	실제 합 59 (기대 합) (59.0)	26 (26.0)	29 (29.0)	50 (50.0)	164 (165.0)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집단 아동의 친구는 주로 일반 집단에, 피해 집단 아동의 친구는 피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에, 가해 집단 아동의 친구는 가해 집단과 피해/가해 집단에, 피해/가해 집단 아동의 친구는 피해 집단, 가해 집단, 피해/가해 집단에 높은 비율로 분포되었다. 그리고 또래괴롭힘에 관여되어 있는 아동들이 일반 집단 아동을 친구로 사귀는 비율(5.7%)은 아주 낮았다. 즉, 또래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아동들은 자신과 유사한 친구를 사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가해 아동은 가해 아동을 자신의 친한 친구로 사귀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해 아동 뿐 아니라 피해 아동들에게서도 발견되었다.

3) 친구관계의 질

가해 및 피해 아동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선택한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갈등 및 경쟁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일반 집단과 비교하였다. 일원 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들과 Duncan 사후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 중에서,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인정'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신뢰'에서 가해, 피해, 피해/가해아동은 일반 집단 아동보다 모두 점수가 낮았으나, '정서적 안정', '도움', '인정'에서는 일반 집단과 가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 집단이나 피해/가해 집단 아동들은 친구로부터 낮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친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일반 집단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는 일반아동이나 가해 아동의 경우보다 사회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세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가해 집단 아동들은 친구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에서 일반 집단보다 낮았기 때문에, 네 번째 가설은 지지되지 못했다. 즉 가해아동들도 피해아동 만큼은 아니지만 친구관계의 질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2.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 아동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자아지각의 하위 영역 별로 일반 집단과 비교하였다. 일원 변량분석 결과 자아지각의 하위 영역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표 4> 아동의 유형에 따른 친구관계 질의 일원변량 분석 결과(성과 학년 통제)

	아동의 유형				F
	일반(n=66)	피해(n=62)	가해(n=61)	피해/가해(n=90)	
친구의 지원					
정서적 안정	3.20(.78) ^c	2.64(1.01) ^a	2.98(.81) ^{bc}	2.72(.87) ^{ab}	6.29***
신뢰	3.36(.70) ^b	2.96(.84) ^a	3.07(.81) ^a	3.07(.85) ^a	2.99*
도움	2.99(.63) ^b	2.67(.77) ^a	2.80(.76) ^{ab}	2.69(.77) ^a	2.75*
인정	2.76(.70) ^b	2.16(.82) ^a	2.66(.75) ^b	2.38(.73) ^a	9.08***
친구에 대한 만족	3.61(.49) ^b	3.28(.72) ^a	3.37(.60) ^a	3.28(.76) ^a	3.44*

*p<.05 **p<.01 ***p<.001/ a, b, c : 같은 글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집단임.

<표 5> 아동 유형에 따른 자아지각의 일원 변량분석 결과(성과 학년 통제)

	아동의 유형				F
	일반(n=66)	피해(n=62)	가해(n=61)	피해/가해(n=90)	
사회적 수용	3.07(.52) ^b	2.85(.65) ^a	3.09(.63) ^b	2.79(.66) ^a	4.44**
사회적 행동	2.96(.54) ^b	2.72(.61) ^a	2.77(.59) ^{ab}	2.79(.50) ^{ab}	2.84*
신체적 능력	2.58(.65)	2.58(.80)	2.84(.83)	2.76(.73)	n.s.

*p<.05 **p<.01/ a, b : 같은 글자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집단 표시임.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중 에서, '사회적 수용'과 '사회적 행동'에서만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5>에서 보듯이 사 후 검증 결과, '사회적 수용'에서는 일반 집단 과 가해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피 해 및 피해/가해 집단만 일반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행동'에서는 피해 집 단만 일반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가해 아동은 일반 집단 아동보다 모든 영역에 서 자아지각이 더 낮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 아동들은 또래의 수용이나 자신의 사회적 행 동에 대해서 일반 집단 아동들보다 부정적으 로 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은 사 회적 수용면에서 자아지각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으나, 가해 아동의 신체적 능 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3. 친구관계 및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예언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또래괴롭힘과 친구관계 질 그리고 또래괴롭힘과 자아지각의 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성차와 학년차를 보인 변인들 이 있었으므로, 두 가지를 통제한 후 부분 상 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6>에는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간 의 부분 상관계수(표 6의 1)와 다시 자아지각 을 추가로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계수(표 6의 2)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1에서 친 구 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의 '가해'는 '친밀 감'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하위 변인이 없었다. 그러나 친구의 지원과 친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은 또래괴롭힘의 '피해'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친구관계

<표 6>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괴롭힘 점수간의 부분 상관계수

	친구관계의 질								
	정 서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동료	갈등	경쟁	만족감
1. 통제 변인 : 성, 학년(n=279)									
가 해	.03	.02	.03	.14*	.07	.05	.01	-.05	.03
피 해	-.15*	-.19***	-.20***	-.09	-.19**	-.29***	-.06	-.05	-.30***
2. 통제 변인 : 성, 학년, 자아 지각(n=254)									
가 해	.03	.03	.04	.14**	.06	.07	.00	-.05	.03
피 해	-.04	-.12	-.07	-.03	-.08	-.12	-.05	-.01	-.16**

*p<.05 **p<.01 ***p<.001

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 그리고 '친밀감'은 '피해'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따라서, 가해 점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친밀한 관계일수록 높았으며, 피해 점수는 가장 친한 친구의 다양한 사회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6>의 2에서 자아지각을 추가로 통제한 후의 부분 상관을 보면,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의 상관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또래괴롭힘의 '피해'와의 상관은 대부분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단지,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피해'와의 부적 상관만이 유의하였으나, 상관 정도가 낮아졌다. 즉,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또래괴롭힘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기보다는 자아지각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련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피해'의 관계는 자아지각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의하였으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는 성과 학년을 통제한 후의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간의 부분 상관계수와 친구관계의 질을 추가로 통제한 후의 부분 상관계수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표 7>의 1에서 또래괴

롭힘의 '가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자아지각의 하위 변인은 없었다. 그러나 '피해'는 자아지각의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사회적 수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또래에 대한 가해 행동과 자아지각은 관련이 없었으나, 피해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며, 또래의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았다.

친구관계의 질을 추가로 통제한 후의 결과를 <표 7>의 2에서 보면, 자아지각의 '신체적 능력' 영역과 '가해'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상관계수에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가해행동은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지, 신체능력과 사회적 수용에서 자아지각이 높은 아동들은 친구관계의 질과 무관하게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이 될 가능성이 낮았다.

마지막 분석으로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의 하위 변인 중 어떠한 변인들이 또래괴롭힘을 예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과 학년을 투입하여 두 변인을 통제하였으며, 2단계에는 친구의 유형, 3단계에는 친구관계 질의 하위 변인들, 4단계에는 자아지각의 하위 변인들이 투입되었고, 마지막 단계에는 유의한 변인으로 선택

<표 7>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 점수간의 부분 상관계수

	자아지각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 모	사회적 수용	사회적 행동
1. 통제 변인 : 성, 학년(n=254)					
가 해	-.01	.10+	-.01	.01	-.07
피 해	-.18**	-.13*	-.05	-.27***	-.02
2. 통제 변인 : 성, 학년, 친구관계의 질(n=254)					
가 해	.04	.14*	.03	.03	-.04
피 해	-.15**	-.13*	-.02	-.22***	-.03

*p<.10 **p<.05 ***p<.001

〈표 8〉 또래괴롭힘의 가해와 피해를 예언하는 변인

피 해		가 해	
예 언 변 인	β	예 언 변 인	β
1단계 : 성	.05	1단계 : 성	-.20**
학년	.11*	학년	.03
2단계 : 없음		2단계 : 친구유형(가해자)	.10*
3단계 : 친구관계질(만족감)	-.16**	3단계 : 친구관계질(친밀감)	.14*
4단계 : 자아지각(사회적 수용)	-.22**	4단계 : 자아지각 (신체적 능력)	.13*
5단계 : 만족감×사회적 수용	n.s.	5단계 : 친밀감×신체적 능력	n.s.
$R^2=.10$		$R^2=.07$	
$F(df=5,260)=7.84***$		$F(df=5,260)=5.03***$	

* $p<.10$ ** $p<.05$ *** $p<.001$

된 친구관계 변인과 자아지각 변인간의 상호작용향을 넣어 검증하였다. 2단계부터는 단계적 변인 추출 방법으로 유의한 변인들을 선정하였으며, <표 8>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8>을 보면,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은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이었다.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 설명변량은 10%였다. 또래괴롭힘의 '가해'를 예언하는 유의한 변인은 '성', 친구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7%였다. 한편, 친구의 유형으로 가해아동은 2단계까지는 유의한 변인으로 회귀 모델에 포함되었으나, 다음 단계로 가면서 10% 유의도 수준으로 남게 되었다. 결과를 해석하면, 친구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또래로부터의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높았다. 한편,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아보다는 남아가 또래에게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와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친구관계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첫째, 상호적 친구를 가진 아동이 일방적 친구를 가진 아동보다 피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으로써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또래괴롭힘의 피해 아동들이 대체로 또래로부터 거부되기 쉽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도현심, 2000; Hodges 등, 1997; Pellegrini 등, 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피해 아동들에게 친한 친구가 부족한 것은 그들의 성격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이 높고, 수줍음을 타며 위축되어 있고, 자기주장이 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보경, 도현심, 2002; 심회옥, 2003; 이춘재, 광금주, 2000a). 따라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친구를 만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게 되어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친밀한 친구를 가진 아동은 상호지원과 보호해줄 대상으로 친구가 있으므로 또래괴롭힘의 피해

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괴롭힘에 관여된 아동의 친구 유형에서 가해 아동은 자신의 친한 친구로 가해 아동을 사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두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피해 아동에게서도 나타났으며, 아동은 친구를 사귀는 때 자신과 유사한 아동을 선택하고 함께 어울린다는 Rubin 등(1994)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과 상호 선택한 친구간에 또래 피해, 신체적 강인함,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서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는 보고(Hodges 등, 1997)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의 가해 유형만이 아니라 피해 유형에서도 아동은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친구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친구를 선택하고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친구간의 유사성이라는 것(황혜정, 2002)에서도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또래괴롭힘에 관여된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서 피해 아동은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과 친구에 대한 만족감에서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여 가설3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가해 아동은 일반 아동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친구에 대한 신뢰와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일반 아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해 아동들이 맺고 있는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 아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설4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 아동들이 친한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이춘재·곽금주(2000b)의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가해 아동은 친한 친구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치되고 있다.

피해 아동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

는 피해 아동들이 친밀한 친구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일 것으로 추론된다. 즉, 또래로부터 거부되기 쉽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행동적 문제를 보임으로써 친구와 지원적이고 만족스런 관계를 경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가해 아동에 관한 결과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친구관계 질을 세분화하여 조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또래괴롭힘에서도 피해 아동에게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가해 아동의 친구관계 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인다. 하나의 대안적 해석으로, 가해 아동은 공격성, 충동성이 높고 지배적이며 외현화된 문제를 갖는 경향이 있으므로(심희옥, 2003; 이춘재·곽금주, 2000a) 친구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친구로서 신뢰를 갖기 어렵고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 즉 가해 아동도 피해 아동만큼은 아니나 어느 정도 친구관계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도구나 가해 및 피해 아동의 분류 방식 등에 따른 차이가 결과의 상치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가해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자아지각과 또래괴롭힘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은 다른 집단 아동에 비해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여 이 부분에 관한 가설은 지지되었다. 피해 아동이 낮은 자아지각을 보이며, 특히 사회적 수용 면에서 낮게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김영신 등, 2001; 양원경·도현심, 1999; 이춘재·곽금주, 2000b; 최미경·도현심, 2000; Egan & Perry, 1998)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행동에서

도 피해 아동의 자아지각이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임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행동 측면에서 피해 아동의 자아지각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들의 또래수용도가 낮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도현심, 2000; 양원경·도현심, 1999). 이 시기의 아동은 또래로부터 선호되지 않고 거부되는 경험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 이를 자신과 결부시킨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래로부터의 지속적인 놀림, 소외, 신체적 가해 등의 경험이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공포나 우울감이 증가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해아 유형 중에도 수동적 피해아(passive victims)는 불안정, 복종적이며 자기 방어를 못하는 등 자신감의 결여와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또 다른 해석으로 피해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피해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회피적인 대처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신재선·정문자, 2000), 사회적 회피의 경향이 있다는 보고(Kochenderfer & Ladd, 1996)가 있다. 즉 피해 아동은 또래와의 갈등을 위협으로 지각하기 쉬우며, 이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 회피적인 전략을 습득한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되고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 가해 아동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일반아동 및 피해아동에 비해 높은 경향은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이에 관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관분석(표 7)과 위계적 회귀분석(표 8)에서는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과 가해 점수 간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 아동들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 높을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으나, 신체적 능력에서의 표준편차(표 5)가 다른 영역보다 큰 것으로 미루어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 이를 만큼 크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집단간 차이에서 비록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지만 상관분석 및 회귀 분석 결과에 더 비중을 두어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해 아동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은 결과의 상치를 보인만큼 추후 연구에서 다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끝으로 친구관계의 질과 자아지각을 함께 고려하여 또래괴롭힘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친구관계나 자아지각 모두 가해보다는 피해와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유형에 대한 예언변인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피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과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아지각이었으며, 가해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은 성, 친구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지각이었다.

둘째, 자아지각은 또래괴롭힘의 가해보다는 피해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래괴롭힘의 피해와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계는 자아지각에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래 괴롭힘과 자아지각의 관계는 친구관계의 질과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앞의 서론에서 고찰한 두 가지 대안 중 '간접적 효과'에 대한 설명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의 지원이 또래괴롭힘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중재하기보다는 자아지각을 매개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들의

친구관계를 그려볼 수 있다. 피해 및 가해 아동들은 모두 자신과 유사한 아동을 친구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 및 가해 아동의 친구관계가 이들의 현재 상황을 유지시켜주는 데 일부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피해 아동들은 자신과 같이 피해를 당하는 아동과 어울리며 사회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친구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었다. 친구관계의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의 낮은 사회적 자신감을 매개로 피해와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가해 아동들은 자신과 같이 공격적인 아동과 비록 신뢰롭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예언해주는 변인은 친구에 대한 만족 정도와 사회적 자신감이었다. 또래를 가해할 가능성을 예언해주는 변인은 아동의 성별 및 친한 친구와 비밀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친밀감과 자신의 신체적 강함에 대한 자신감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연구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또래 괴롭힘에 가담된 아동을 학교 현장에서 중재하는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또래 관계 및 친구관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에 가담하고 있는 아동들의 상호적 친구관계 유무, 친구의 유형, 친구관계의 질까지 다양하게 조사하여, 가해 및 피해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회귀 분석에서 친구관계 변인들이 가해 및 피해에 대해 10% 정도 밖에는 설명해 주지 못했지만, 이는 연구 방법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동일한 정보원을 통해서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정도는 또래의 보고를 기초로, 자아지각과 친구관계는 아동 자신의 보고를 기초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된 방법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공변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인들간의 상관 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각 연구 변인들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적인 교육 현장에서 아동 지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또래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상호적 친구가 적고, 자신과 유사한 유형의 친구를 사귀며, 친구관계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래괴롭힘과 친구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아지각에서는 두 유형간 차이가 있었는데, 또래수용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아동들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고, 신체적 자신감이 높은 아동들은 가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참 고 문 헌

- 고윤주·김영신(200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상호적 친구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4), 1-21.
- 고윤주·김영신·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 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2), 65-78.
- 김영신·고윤주·노주선(2001).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K-PNI) 개발 연구: 집단따돌림 및 또래괴롭힘 측정도구. *신경정신의학*, 40, 867-875.

- 곽금주(2000). 학교 폭력 및 왕따 예방 프로그램(II).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자료집, 111-123.
- 도현심(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 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3.
- 도현심 · 권정임 · 박보경 · 홍성훈 · 홍성영 · 황영은 (2003).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특성에 기초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4(4), 103-122.
- 박보경 · 도현심(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부부갈등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3(5), 51-65.
- 신재선 · 정문자(2002). 초등학교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5), 123-139.
- 심희옥(2002).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발달과 또래 괴롭힘의 가해, 피해, 친사회적 행동과의 횡, 종단적인 관계. *아동학회지*, 23(3), 1-15.
- 심희옥(2003). 아동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 교사보고에 따른 문제행동과 유능성 : 학년과 성별 비교. *아동학회지*, 24(2), 79-93.
- 안재진 · 이경남(2002). 아동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9-20.
- 양원경 · 도현심(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9.
- 오원정 ·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과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14, 36-48.
- 이은혜 · 고윤주(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혜 · 신숙재 ·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논집*, 6, 175-191.
- 이점숙 · 유안진(1999).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따른 직접적인 괴롭힘과 관계에서의 따돌림. *아동학회지*, 20(3), 107-121.
- 이춘재 · 곽금주(2000a).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 실태와 특성*. 서울 : 집문당.
- 이춘재 · 곽금주(2000b).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65-79.
- 정태연 · 김인경 · 김은정(2001). 집단 따돌림의 측정 방법에 따른 행동평가의 차이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145-159.
- 최미경 · 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3), 85-106.
- 황혜정(2002).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35-49.
- 초등생 학교폭력 중고생보다 심각(2004. 1. 13). *조선일보*, A10.
- Andreou, E.(2000).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constructs in 8- to 12-year-old Greek school children. *Aggressive Behavior*, 26, 49-56.
- Berndt, T. J.(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46-365).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lton, M. J., Trueman, M., Chau, C., Whitehand, C., & Amatya, K.(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links between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 implications for befriending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 461-466.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Gest, S., & Gariépy, J-L.(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Egan, S. K., & Perry, D. G.(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Denver.
- Hartup, W. W.(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 1-13.
- Hodges, E. 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1999).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on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Kochenderfer, B. J., & Ladd, G. W.(1996).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Mendelson, M. J., & Aboud, F. E.(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llegrini, A. D., Bartini, M., & Brooks, F.(1999). School bullies, victims, and aggressive victims : Factors relating to group affiliation and victimization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216-224.
- Rubin, K. H., Lynch, D., Coplan, R., Rose-Krasnor, L., & Booth, C. L.(1994). Birds of a feather : Behavioral concordance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778-1785.
- Schwartz, D., Farver, J. M., Chang, L., & Lee-Shin, Y. (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 113-125.

2004년 4월 30일 투고 : 2004년 5월 17일 채택